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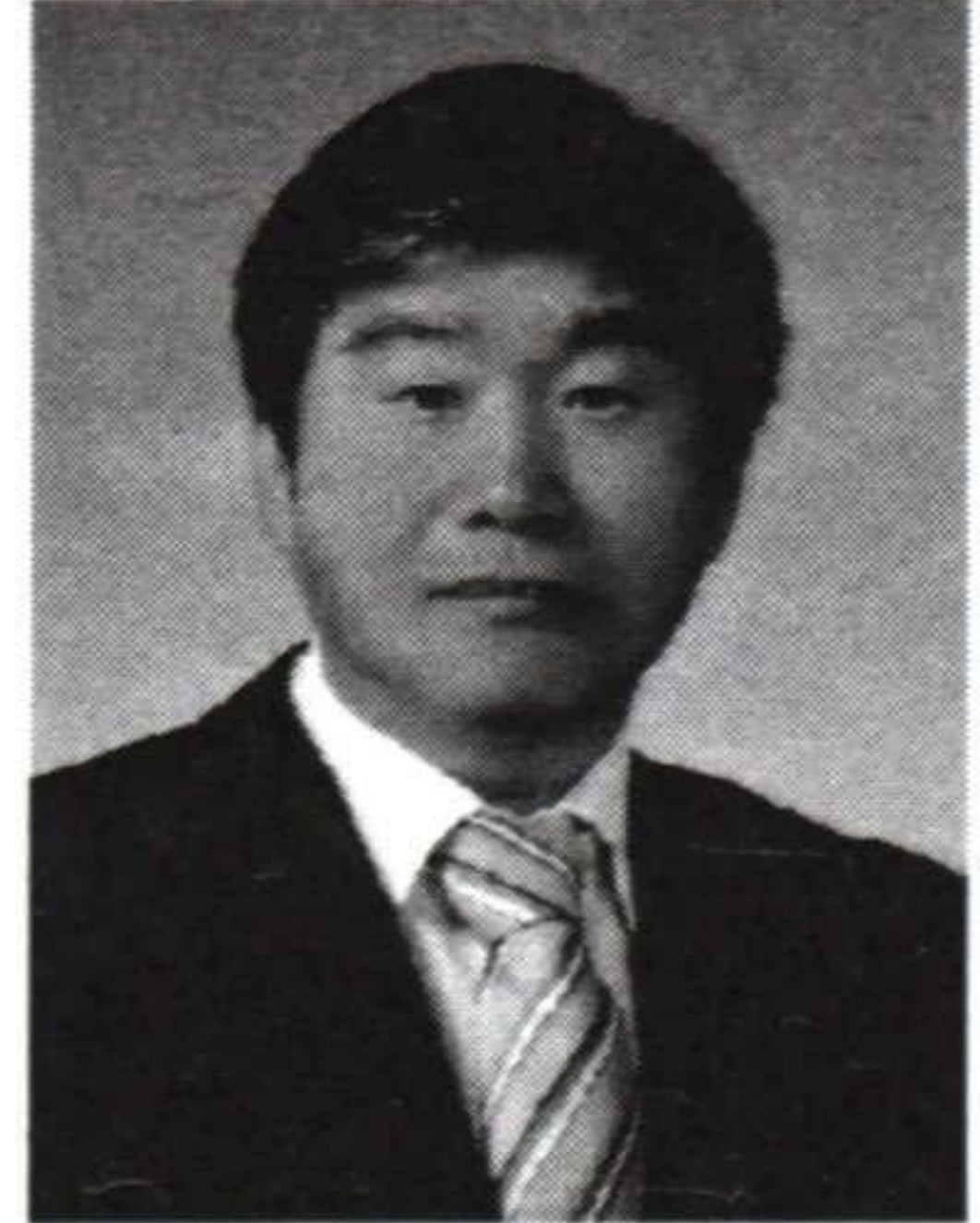
한강발원지 검룡소 학술심포지엄

-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화) 오후2시~5시
- ▣ 장 소 : 태백문화원 2층 강당
- ▣ 주 최 : 태백문화원
- ▣ 후 원 : 태백시 태백시의회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한강발원지 검룡소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화) 오후2시~5시
- 장 소 : 태백문화원 2층 강당
- 주 최 : 태백문화원
- 후 원 : 태백시 , 태백시의회

인 / 사 / 말



태백문화원장 김 강 산

태백은 국토의 뿌리땅으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고장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강과 산의 뿌리 땅인 태백시는 이곳에서 뻗어간 강줄기와 산줄기가 한강이남의 국토를 만들어 놓고 있다.

얼마 전 수도권에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것 10가지를 말하십시오’ 하니, 그 10가지 속에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려니와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의 대표 강이라 할 한강이기에 그 발원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관심의 대상인 검룡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명승 제 73호로 지정되는 경사가 생겼으니 태백시민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축하해야 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검룡소야 말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적 명소로서 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백의 미래 자산 가치로서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니 태백시민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이다.

이에 태백문화원에서는 검룡소의 명승 지정을 축하하면서 이에 따른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논의를 훌륭히 교수님들을 초빙, 학술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다.

보존이 가장 큰 개발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탐방객들 때문에 명승지가 훼손되는 실정이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에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여 태백의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태백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한강발원지 검룡소 학술심포지엄

◆ 개최 배경

한강의발원지 검룡소가 국가지정명승 제73호로 지정에 따른 위상정립의 학술적 접근.

◆ 목 적

한강발원지 검룡소를 친환경적 관리를 하기위한 학술적 대안 제시.

◆ 주 제

국가지정 명승 제73호에 따른
한강발원지 검룡소의 역사성과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

◆ 개 요

일시 : 2010년 12월 28일(화) 오후2시~ 5시까지

장소 : 태백문화원 2층 강당.

주최 : 태백문화원

후원 : 태백시 . 태백시의회

◆ 사회자 :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 발표자 :

제1주제 :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발 표 : 전 상 호(강원대학교 교수)

제2주제 : 명승지정에 따른 한강발원지 검룡소의 보전 및 활용방안

발 표 : 함 석 종(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박선희(강릉원주대 관광학박사)

배일환(태백시청 기획감사실)

심금술(한강의아침 대표)

차병옥(태백문화원 이사)

홍춘봉(전국매일신문 기자)

◆ 심포지엄 일정

시 간	식 순	소요시간	내 용
14:00~14:10	개회/인사말	10분	개회식
14:10~15:00	제1주제 발표	50분	검릉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15:00~15:50	제2주제 발표	50분	명승지정에 따른 한강발원지 검릉소의 보 전 및 활용방안
15:50~16:20	주제 토론	30분	토론자
16:20~16:50	전체 토론	30분	자유토론
17:00	폐회		

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7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1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2. 명승 지정

◆ 태백 검룡소(儉龍沼)

- 지정명칭 : 태백 검룡소
-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3호
-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 지정사유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임.
 -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2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냉천(冷泉)으로 사계절 9℃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20m 이상 계단상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폭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틀임을 하는 것처럼 보임.
- 문화재구역 : 31필지/ 91,745㎡(세부내역 불임)
- 문화재관리단체 : 태백시(태백시장)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태백 검룡소」 31필지/ 91,745㎡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	창죽동	1-1	임	6,128,590	42,239		강원도
2	창죽동	162-1	천	1,461	409		국(건설)
3	창죽동	164-1	도	612	604		국(건설)
4	창죽동	167	전	4,103	2,717		태백시
5	창죽동	168	전	258	258		태백시
6	창죽동	169	전	972	972		태백시
7	창죽동	170	전	1,309	1,103		태백시
8	창죽동	170-1	도	38	38		국(건설)
9	창죽동	170-2	천	426	377		국(건설)
10	창죽동	153	전	3,762	2,195		태백시
11	창죽동	153-1	도	1,237	398		국(건설)
12	창죽동	154	전	446	100		태백시
13	창죽동	155	전	1,514	94		태백시
14	창죽동	156	전	734	433		태백시
15	창죽동	157	전	496	18		태백시
16	창죽동	158	전	797	195	동해시 천곡동 샤인빌3-101	이주해
17	창죽동	159	전	1,293	363	“	이주해
18	창죽동	159-1	도	592	383		국(건설)
19	창죽동	159-2	천	2,271	1,762		국(건설)
20	창죽동	160	전	506	475		태백시
21	창죽동	161	전	129	129	태백시 창죽동92	이해수
22	창죽동	162	전	1,269	214		태백시
23	창죽동	164	전	1,696	1,537	정선군 동면 백전리50	최광순
24	창죽동	165	전	536	536		국(기획)
25	창죽동	166	전	2,218	1,744		태백시
26	창죽동	190	천	75,676	843		국(건설)
27	창죽동	47-1	임	165,137	9,468	서울 강남구 논현동16-41외8인	박덕선외8인
28	창죽동	71	임	189,521	9,436		국(산림)
29	창죽동	71-1	도	1,927	312		국(건설)
30	창죽동	71-2	천	4,563	331		국(건설)
31	창죽동	72	임	284,033	12,062		국(산림)
계		31필지			91,745		

주제1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2010. 12. 28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전 상 호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전 상 호

검룡소는 한강의 물줄기가 가장 멀리까지 연속하여 뻗어있는 곳이다. 이곳은 계곡의 모습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고,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의 하나로 국가에서 명승으로 지정함은 매우 타당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검룡소는 이러한 경관적 특징외에도 한강의 발원지에 있는 여러 개의 샘 중에서 연속적인 물줄기가 한강의 기준점인 유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지정하여 문화적, 교육적으로 활용도기를 바란다.

본고에서는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설정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천은 저마다 발원지(發源地)를 가지지만 여러 개의 지류(支流)를 갖는 하천의 발원지는 하구의 하천기준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유로(流路)의 끝이 있는 곳이 발원지로 설정된다. 그러나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가 크고 투수성이 큰 토양이나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조사 시기에 따라 발원지점을 달리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발원지를 특정 지점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천의 집수역(集水域)을 발원지로 설정하고 있다(建設交通部 2000).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통하여 오대산의 우통수(于筒水)로 알려져 왔으나 한국의 정밀 실측지도가 제작된 1918년에 발간된 조선지지(朝鮮地誌)에서는 삼척군 하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이후 1970년대까지 발간되는 각종 문헌에는 한강의 발원지를 우통수, 대덕산, 오대산, 삼척군, 태백산맥, 정선군, 하장면 등으로 기록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혼란은 오랫동안 지지의 저자들이 고문헌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데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1981년 이형석은 조선총독부의 근세한국 1/50,000 지형도(1918)의 하천 유로에 대한 도상 계측을 근거로 한강의 최상류 하천은 태백시의 창죽천이고 발원지는 창죽천의 집수역인 금대산(국립지리원의 지형도에는 금대봉으로 표기됨) 북쪽계곡으

로 제안하였다.

그후 하천의 발원지는 특정 지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1986년 김강산에 의해 금대산 북쪽 사면의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되었으며 1987년 김강산에 의해 고목나무샘보다 표고가 높은 지점의 한 샘이 제당굼샘으로 이름 지워지고 발원샘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삼국유사나 조선대의 지지류 조사한 사람들은 오대산의 우통수도 한강의 발원지로서 오랫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당시의 사람들의 발원지 설정 개념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옛사람들의 발원지 설정개념을 받아들이어 우통수도 한강의 역사적 발원지로서 설정되기를 제안하였다(2000, 전상호).

앞서 논의된 발원지 외에도 각 지역에서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몇군데 더 제안되는 가운데 한강의 발원지 논란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한강의 발원지로 거론된 지점은 금대산, 금대봉, 검룡소, 제당굼샘, 고목나무샘, 석간수, 우통수, 금강산 등 여러 곳이 기술되면서 혼란이 계속되었다.

하천의 발원지는 하천 관리자에 의해 설정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한강의 유로에 대한 전반적인 실측은 1918년 이후 이루어진 일이 없으므로 한강의 건설교통부도 한강의 발원지 설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하다가 2000년 5월 한국하천일람(건설교통부, 2000)에서 한강의 발원지를 이형석에 의해 1981년 제안되었던 태백시 금대산 북쪽기슭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강의 발원지 논란은 중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 따라 문화적, 관광적인 목적으로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특정 지점을 설정할 필요성과 고문헌에 발원지로 기록된 지점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 옛사람들이 설정한 발원지 설정 기준을 검토하여 특정 발원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한강의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발원지를 부정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도록 할 목적은 아니고 다만 옛사람들의 정서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의도이다. 따라서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시의 금대산 북쪽기슭이지만 각 지역에서 문화적 혹은 교육적 목적으로 설정되는 특정 발원지도 지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그간 한강의 발원지로 논의되었던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의 우통수,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북쪽 계곡, 금대산 북쪽 기슭의 검룡소와 제당굼샘 등에 대해 그간의 기록을 점검하고 현장 답사, 면담 등을 통하여 傳說, 傳 등을 점검하고, 각 지점의 유황(流況), 유로(流路)의 연속성 등의 특징을 검토하여 특정 발원지로서 적합성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지지 등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우통수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를 주로 하였고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1980년대부터 한강의 발원지로 거론되는 금대산, 검룡소, 제당굼샘 등에 대해서는 고기록을 찾을 수 없어 현장 조사나 신문, 학

술회의 자료,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

우통수에 대해서는 주로 고문헌을 인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대 문헌도 검토하였다. 이용된 문헌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오대산 서대 수정암 중창기(五臺山 西臺 水精菴重創記), 조선세종실록 153권(朝鮮世宗實錄 卷 15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 여지고(增補文獻備考 輿地考), 여지도서(輿地圖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동환록(東輿錄), 지행록(地行錄), 대동지지(大東地志), 관동지(關東誌), 강원도지(江原道誌) 등을 검토하였다. 지지중 관찬 지지의 많은 부분은 국역되어 있었고 국역본이 없는 사찬 지지의 번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금대산, 검룡소, 제당굴샘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전의 문헌이 없어 신문 기사, 학술회의 발표문, 사전류, 탐사가들의 탐사 기록,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강 발원지에 대해 정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현지 조사

한강 발원지로 기록되었거나 거론된 일이 있는 우통수, 검룡소, 고목나무샘, 제당굴샘은 본 조사 전에도 수차 방문하였으나 본 연구 기간(2000. 5. 4 - 8.31)에도 각 장소를 방문 조사하였다. 우통수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10일 현지조사를 하였고, 금대봉, 검룡소, 고목나무샘, 제당굴샘에는 2000년 7월 8일 방문하여 위치 측정, 유황, 유로의 발달, 보전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위치 측정은 한국 GPS의 GEOSTAR를 이용하였다. 위치 측정은 WGS 84 타원체를 기본으로 하여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에서 위치를 읽기 위하여 Bessel 1841 타원체 좌표값으로 변환한 위도, 경도로 표시하였다.

2. 조사 내용

1) 문헌 조사

우통수가 한강 발원지로 기록된 문헌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세종실록(朝鮮世宗實錄)이며 그후 조선 말기까지 관찬 지지나 사찬 지지에도 한강의 발원지로 한결같이 오대산의 우통수(于筒水)로 기록되어 있다.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우통수가 거론되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기록된 한강의 원(源), 근원(根源) 혹은 시원(始源)은 모두 오대산의 우통수로 나와 있고, 발원지로 여러 곳을 기록한 문헌에서도 우통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강 발원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타 문집 등의 내용을 발췌하고 고기록에 대해서는 우통수가 기록된 부분의 원문을 [] 안에

수록하였다.

문헌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삼국유사 권3, 탐상, 대산오만진신조, 명주 오대산 보절도 태자 전기

삼국유사는 고려 충열왕 7년(1281) 일연에 의해 편찬된 사서로 우통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우통수에 대한 기록과 우통에서 나는 물을 신령스러운 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우통수 관련 내용은 신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오대산 서대의 수정암에 태자 2명이 숨어 들어와 살게 되는데 보절도태자와 효명태자가 그들이다. 그들이 매일 아침 부처님께 우통수 혹은 골짜기 물로 차를 다려 공양한다는 내용이다. 효명태자가 누구인지는 옛 문헌들이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32대 효소왕(三國遺事)이라는 해석과 33대 성덕왕(閔漬,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 한국불교문화원, 월정사, 1988에서 재인용)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진여원은 현 상원사의 고명이다.

우통수의 해석도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汲于洞水煎茶供養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汲 于洞水 煎茶 供養”으로 보아 “우통수의 물을 길어 차를 다려 공양하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汲 于洞水 煎茶 供養”의 于洞水の 于를 목적격 조사, 혹은 어조사로 보아 “골짜기의 물을 길어 차를 다려 공양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나오는 “寶叱徒太子常服于洞靈水”를 보면 우통의 신령스러운 물은 어느 한 지점의 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의 정서로 보아 신령스런 물이란 골짜기의 물 전체보다는 특정 지점의 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권근 양촌집 오대산 서대 수정암 중창기

오대산 서대 수정암 중창기는 현재의 우통수 옆에 수정암을 중창한 후 중창에 참여하였던 나암이 권근(權近:1352-1409)에게 중창의 역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여 당시의 사실을 적은 기문(記文)으로 동문선 권 80에 같은 이름으로 전해온다.

③조선세종실록 권153, 강릉조, 강릉대도호부

한강의 발원지로 우통수를 기록한 고지지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우통수가 한강의 원천임을 밝히는 이유가 잘 나와 있다. “색과 맛, 무게, 한강에서 흐르는 모양 등으로 인하여 한수(漢水)의 근원으로 한다고 하였다.

④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조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몇 차례 수정, 증보가 있는 후 1530년에 55권의 완성본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발간되었다.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알려져 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여기서는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 권근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⑤미수전집 기언 권28 하편 산천하

미수전집(眉垂全集)은 17세기 강릉부사를 지낸 허목(許穆 : 1595-1682)에 의한 것이다.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통의 물을 신령스런 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앞의 문헌들에 나오는 우통(于筒), 혹은 우동(于洞)이 우통수(于筒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⑥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

팔역지(八域地)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李重煥(1690-?)이 영조 27년(1751년)에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 나라 지리서. 1책. 필사본(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이다.

⑦연려실기술 별집 권16 지리전고(총지리)

조선 후기 실학자 李肯翊(1736-1806)에 의해 1776년경(영조 52)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으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⑧여지도서 강원도 강릉 산천조

영조 33-41년(1757-1765)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만든 전국의 읍지로 관찬지이다. 여지도서의 편찬 목적은 편성된 지 270년이 지난 동국여지승람의 개수, 속성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⑨지행록, 지행부록, 오대조

이만부(李萬敷, 號 息山, 1664-1732)에 의해 작성된 사찬 지지로 우통수를 신천(神泉)이라 하고 산중의 물과 합쳐 한강의 시원으로 기록, 한수의 원천이 되고 원천에 수정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⑩동환록, 권3

한강원(漢江源)에 대해서는 택리지 인용, 팔역지는 택리지를 말한다.

철종 10년(1859년)에 윤정기(尹廷琦)가 지은 책. 4권 1책. 필사본. 우리 나라의 지

리·역사와 기타 많은 사항을 사전식으로 엮은 책으로 한강의 위치, 옛 이름, 오대산이나 한강의 유로에 있는 여러 지역의 고지명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권3에 한강이 오대산에서 발원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⑪증보문헌비고 권20 여지고8 산천

증보문헌비고는 1908년에 250권 50책으로 인쇄 간행되었으나 여지고는 1770년(영조 46년) 8월 동국문헌비고 100권 40책의 내용에 들어 있다(19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따라서 이 부분을 인용할 때는 1770년 신경준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⑫관동지 권10 강릉조

관동지는 1829-1931년에 강원감영에서 내린 수합령에 따라 수합된 읍지로 우통수는 10권에 기록되어 있다.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하고 있다.

⑬대동지지 강릉

김정호에 의해 철종 14년(1863)에 편찬된 지리지. 각 관읍에 대한 철저한 현재적 파악이 중요 특징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우통수 부분에서 앞에 나온 지지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

⑭육당취남선전집 9. 조선의 강하

漢江의 근원은 대개 둘이 있다. 南쪽 것은 五臺山 于筒이란 데서 나와서 京畿·忠清兩道の 여러 물을 모아 가지고 차차 北으로 올라오고, 北쪽 것은 金剛山 萬瀑洞에서 나와서 江原道 嶺西와 京畿 北部의 여러 물을 모아 가지고 南으로 내려오다가, 楊平·加平·楊洲 三郡의 交界에서 南北 兩江이 合水하여 西으로 京城을 둘러서 交河 鰲頭山下에서 다시 京畿 北部의 물을 모아 가지고 오는 臨津江을 아울러 가지고 祖江이란 이름으로써 西海로 들어간다. 全流長 五一四킬로미터, 可航區間 合三三十킬로미터, 流域이 또한 廣大하여 國境의 兩江을 빼고는 朝鮮 第一의 大江이 되며, 水量이나 배질하는 동안은 豆滿江보다도 길다. 半島의 허리통으로 흐르고 또 京畿의 血管이니까, 漢江의 地理的 또 政治的 重要성은 따로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론 理由 말고 다만 景致的 價値로써 말할지라도 漢江은 당연히 朝鮮에 있어서 가장 높은 地位를 차지할 것이다. 發源地인 五臺·金剛 兩山은 이르도 말고, 北漢江에는 新淵江·昭陽江, 南漢江에는 俗離山줄기·驪江 등 支流가 있어 그것들이 낱낱이 허다한 名勝을 가지고 있으므로, 本·支流 전체에 勝地 많기로는 鴨綠江·大同江할 것 없이 漢江이 朝鮮 第一이다.

⑮강원도지 권2 평창

강원도지는 1940년대 강원도에서 발간한 관찬지지로 강원도의 실정을 비교적 자

세하게 기록한 지지이다. 발원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우통수에 대한 권근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⑩1950-1980년의 각종 사전들

1950-1980년대의 각종 사전들, 지명 요람들에서는 한강의 발원지로 대덕산, 오대산, 삼척군, 태백산맥, 정선군, 금강산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측 자료를 사용한 예는 없다. 우통수와 금강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지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⑪월간 산

이형석은 1981년 “월간 산” 5월호 등에서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근세한국 1/50,000지도(1918)를 도상 계측한 결과 오대천과 조양강의 합수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오대산의 오대천까지는 62 km, 대덕산의 골지천까지 94 km임을 밝혀 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우통수가 아닌 태백시의 골지천 상류의 금대산(당시 기록에는 어룡산으로 표기) 지역임을 발표하였고 발원샘으로 발원지역에 있는 한 샘을 고목나무샘으로 이름짓고 발원샘으로 제안하였다. 이 자료는 한강의 발원지가 금대산임을 밝힌 최초의 공식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⑫漢江史

1985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한강사에서는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1918년 조선지지의 삼척군 하장면, 1979년 건설부 한국하천유역도의 정선군 북면, 1980년 현암사 국어대사전의 태백산 서쪽과 이형석의 태백시 금대산 움추나무골을 인용하면서 이형석이 주장하는 장소가 조선지지의 견해와 같음을 기록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대덕산이 한강의 발원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대덕산은 금대봉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한강 상류 하천의 도상 계측에서 현재의 금대산과 대덕산과의 거리 측정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

⑬강원일보

1986년 4월 16일, 김강산은 금대봉 기슭의 한 골짜기에서 용출량이 많아 연중 물이 흐르고 창죽천에 직접 흘러드는 한 소(沼)를 찾아 이의 이름을 검룡소로 명명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고목나무샘 위쪽 100 m 쯤에 무명샘이 발견됐으나 웅달샘 정도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987년 1월 25일, 김강산은 고목나무샘 위쪽의 200m 지점에 있는 제당 옆의 샘을 한강의 발원샘으로 제안하면서 이름을 제당굼샘으로 지었다.

⑭건설교통부 2000, 한국하천일람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5월 한국하천일람에서 한강의 발원지를 한강의 기준점

에서 가장 거리에 있는 하천의 집수역으로 하여 금대산 북쪽기슭으로 발표하였다.

2) 현지 조사

① 우통수

우통수는 상원사의 서대 수정암 동쪽 60m 지점에 있는 샘으로 동경 128도 33분 32초, 북위 37도 46분 33초에 있다. 고지지에는 거의 모두 함천(檻泉: 솟아나는 샘)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본 조사시까지의 관찰로는 정저(井底)가 반듯한 돌로 되어 있고 정벽(井壁)이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로 되어 있어 물이 다듬어진 정벽 틈으로 나오기 때문에 풍수기에도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통수와 주변 지역은 선캄브리아기의 혼성편마암으로 공극율이나 함수율이 낮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통수에 대해서는 그간 지표조사 등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전혀 없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 낙엽으로 거의 메워져 우물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옆에는 1995년 평창군에서 세운 표지석이 있다. 1990년까지 우리석이 모두 다 보존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북쪽의 우리석이 유실된 상태이다.

물의 흐름은 관찰되지 않고, 수위는 물이 흐르도록 된 출수구에서 약 15-20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에 이 출수구로 물이 흘렀다면 그간 우통수 주위의 수위가 15-20cm 정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6월10일 방문시에 관찰된 점은 수정암에 거주하는 승려에 의해 청소되어 낙엽이나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물을 덮어둔 것이 관리의 전부이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1987년의 “평창군의 역사와 유적 조사보고서”에 수정암은 기록되어 있는 데 우통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대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통수를 우통수로 부르고 있다. 우통수에서 나온 물이 서울까지 오는 동안 색과 맛이 변하지 않고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흘러온다는 점으로 차를 달이기도 하고 궁중에서 탕약과 약수로 쓰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이를 강심수(江心水)라 하였고 우중수(牛重水)라 하기도 하였다는 용재총화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연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통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정비는 우통수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하려는 계획과 우통수 주변에 석물을 조성하는 계획, 우통수 앞에 방문객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창군에서도 우통수에 대해 위와 비슷한 내용의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비 계획은 우통수 주변의 흙을 제거하고 정벽을 움직이는 일 등이 포함되는데 필자 등이 다년간 관찰한 결과로는 우통수의 수위는 주위의 지하수 수위와 평형을 이룬 우물로 그 수위를 조정하여 물이 흐르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우통수 주변의 지하 수위를 변경시키는 일을 포함하므로 우통수의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오랫동안 무관심에 따른 방치가 우통수를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시킨 가장 큰 요인인데 우통수를 정비하려는 계획으로 우통수는 삼국시대의 기록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우통수의 정비는 현

재의 상태에서 지표조사가 선행된 후 원형을 건드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변 정비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② 수정샘, 수정암에 있는 또 하나의 샘

오대산 서대의 수정암에는 우통수에서 서쪽으로 80여미터 지점(동경 128도33분 29초, 북위 37도46분32초)에 있는 샘으로 이 샘은 함천(檻泉)을 이루어 연중 물이 흘러나와 수정암에서는 이 샘에 비닐 파이프를 박아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다. 가물거나 강수시에도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거의 변하지 않고 수온도 매우 낮아 기온이 30℃가 넘는 7월중에도 10℃였다. 현지에 거주하는 승려는 6℃ 정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현재 이 샘은 돌로 막아져 있어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수정암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샘을 우통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함천(檻泉)의 뜻을 우리샘(돌이나 나무 등으로 우리를 한 샘)으로 한 경우와 솟는 샘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는 데 솟는 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이 샘이 우통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필자 등이 1995년 8월 13일 수정암에서 안거 중인 법일 스님의 협조를 받아 이 샘을 조사했을 때 샘의 내벽 중 한 벽은 손질이 많이 된 큰 돌로 되어 있고 3면은 돌을 쌓아 벽을 이루고, 바닥은 이 지역의 노두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 샘은 유량이 일정하고, 흘러나온다는 점에서는 우통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구조의 투박함으로 보아 고지지에 기록된 우통수일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된다.

1995년 강원대 환경학과에서 이 샘을 조사한 후 샘의 이름이 없다고 하여 필자는 (1)이만부의 地行錄 중 長嶺下出神泉謂之于洞之水合山中之水會于麒麟東壑爲般若淵金剛淵爲漢水之源源有水精寺의 水精寺와 (2)世宗實錄의 西臺之下水精庵側檻泉湧出色味常其重亦然曰于筒水即金剛淵爲漢水之源의 水精庵과 (3)고려말 閔漬의 五臺山聖跡並新羅淨神太子孝名太子傳記에 기록된 西臺의 彌陀房에 둔 在家佛教信仰共同體인 水精社(韓國佛教文化院, 1988)의 水精社 등 여러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샘을 수정샘으로 부르기로 제안하였다. 이 샘에 대해서도 우통수와 같이 지표조사 등이 필요하다.

②금대산 북쪽 계곡

이형석은 근세한국 1/50,000지형도(1918)의 도상계측자료를 근거로 한강의 가장 긴 물줄기가 있는 곳은 태백시의 금대산(당시 기록에는 어룡산으로 기록하고 있다)이라고 1981년 월간 산에 발표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우리 나라의 하천 발원지를 물의 특이성이나 신비성을 근거로 한 방법에서 특정 기준점에서 가장 긴 유로가 있는 지역 혹은 집수역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태백시의 금대산은 한강의 기점에서 가장 긴 물줄기를 가진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대산은 지도에 금대봉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대봉의 최고 고도는 1,418 m이며

대덕산일대와 합하여 4.20 km²에 걸쳐(1993. 4. 26, 자연환경보전법 17조 3항 환경처고시 1993-33호)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고시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하상 계수가 큰 환경에서는 하천의 상류지역에서는 강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갈수기에는 유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대봉 북쪽 계곡은 지표면에는 장기간의 침식에 의해 흙이 침식 당한 후에 나타나는 굽은 바위로 된 지면(현지에서는 서들이라고 함)을 이루고 있어 안정된 유로의 발달이 어려워 풍수기 외에는 물의 흐름이 서들 아래로 흐르거나 아예 유로의 발달을 보기 어려운 지형이지만 지형도상 금대산 일대가 한강 최상류 하천인 창죽천의 집수역이므로 한강발원지로서 가장 타당한 지역이다.

③ 검룡소(儉龍沼)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삼수동) 금대봉 북사면에 있는 용천(湧泉)으로 지하수맥과 연결된 석회암 동굴의 입구가 계곡의 바닥에 노출되어 있어 용천수에 의해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위치는 동경 128도55분37초, 위도37도13분26초, 고도 954 m로 갈수기에도 유량이 관측된다.

1984년 김강산에 의해 발견되어 발견자에 의해 검룡소로 명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되었었다. 현지에는 검룡소라는 지표석이 있다.

둘레 20여미터에 석회암반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하루 5천여톤 가량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이 30여미터의 경사가 완만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며, 깊이 약 1~1.5m, 폭 약 1m의 침식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기온 30℃가 넘는 7월에도 9℃의 수온을 유지하고 연중 용출되는 수량이 많아 하류의 창죽천까지 유로의 발달이 뚜렷하고 검룡소 부근의 하상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유수의 침식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침식 하상을 나타내고 있다.

검룡소에서 창죽천으로 흐르는 유로의 구조나 하도의 연마도, 하도벽의 원마도 등을 감안하면 한 때 석회암으로 구성된 검룡소 일대가 지면에 노출된 후 현재의 하도에서 차별적으로 침식되어 검룡소에서 창죽천으로 흐르는 하도를 형성한 후 산사태 등으로 매몰되어 있다가 심한 강우나 산사태 등에 의해 일부가 지면에 노출되었을 때 김강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

1986년 김강산의 제안에 따라 매몰되었던 부분이 발굴되었고 태백시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금대봉 북쪽 기슭을 집수역으로 하는 용천으로 석회암 동굴이 지하수맥과 연결되어 있고 동굴이 계곡의 바닥으로 열려 있는 형태이다. 용출수에 의한 흐름이 연중 유지되고, 한강의 본류에서 검룡소까지 유로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고목나무샘이나 제당굼샘에 비해 검룡소는 용천의 구조나 규모, 용천수의 양이나 항상성, 유로의 발달, 유로의 전체적인 균형미 등에서 아주 뛰어난 곳으로 보다.

또한 검룡소가 금대봉의 북사면에서 집수된 물을 한 곳에 모아 한강의 최상류 하

천인 창죽천으로 물을 보내는 점으로 보아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검룡소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옛날 서해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헤메다가 이곳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이 연못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수업을 하였다. 검룡소에서 나온 물에 의해 침식된 유로는 그때 이무기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친 자국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이무기는 물을 마시러 오는 소를 잡아먹어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메워 버렸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이 기록된 고문헌은 찾을 수 없었지만 검룡소 관련 기록을 채록할 당시에는 지역 사람들의 검룡소 사랑과 그 지역이 최상류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④제당굼샘

약초 캐는 사람이나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당이 있는 굼(골짜기의 방언)에 있는 샘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위치는 동경 128도55분 00초, 동경 37도12분43초, 고도 1,351 m이다. 태백시에서는 1984년경에 김강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나 오래전부터 약초나 나물 캐는 사람들, 치성 들이는 사람들이 이용한 샘이고 1986년 김강산에 의해 이름 지어지고 명명자에 의해 한강의 최상류 발원샘으로 제안되었고 1987년 1월 25일 강원일보에 의해 확인되었다. 1989년 이형석에 의해 도상 계측 자료에 의한 한강의 물줄기에 있는 샘 중 가장 먼 곳에 있는 샘으로 확인되었다.

이 샘은 금대산 북쪽 기슭의 발달된 바위 지형(현지에서는 이런 지형을 서들이라 부른다)의 바위 아래 표토에 스며들어 흐르던 물이 지면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 제당을 마련하였거나 제당에 오는 사람들이 제물의 가공, 제당의 축조, 혹은 제당 아래에 적당한 크기의 공지가 필요하여 바위를 제거함에 따라 지면으로 물이 흐르게 된 경우로 사료된다.

강수량에 따라 물의 양에 많은 차이가 난다. 1993년 11월 13일 방문하여 표지석을 세울 때는 샘의 용량은 약 4.5 l 정도였는데 2000년 7월 8일 방문시에는 원래의 샘의 용량도 약 20 l 정도로 증가되었고 비슷한 용량의 샘이 원래의 샘 상류 5 m 지점에 두 개 더 생겨 있었고 기기도 표지석이 서 있었다. 샘이 계절에 따라 용량이 크게 변하는 점으로 미루어 겨울철에는 샘의 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온은 7월중에도 6.3 ℃였다. 유로의 발달은 미약하여 샘에서 2 - 3 m 흐른 후에는 서들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았다. 제당굼샘에서 위로 약 150 m, 아래로 약 200 m에 걸쳐 사암의 서들이 전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래부터 이곳에서는 유로의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3. 토 의

①우통수

우통수는 현대의 과학적 발원지 설정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고지지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설정된 우통수의 기술에서 그 물의 색과 맛, 빛이 뛰어나고 한가을 흐르면서 여러 물고 합쳐지지만 섞이지 않고 흘러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강의 원류라고 서술되고 있다.

우통수가 한강의 원류라고 하는 이유들이 과학적으로 판단된 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지지 기록자들이 하천의 발원지 설정에서 최장 집수역이나 최장 거리의 어떤 지점을 발원지 설정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동지지에서는 낙동강의 발원지로 황지(黃池)로 기록하면서 대동여지도에서는 황지옆으로 계속 상류로 물줄기를 이어 그린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중국의 양자강의 옛 발원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최근까지 양자강의 발원지를 사천성의 민산(岷山)으로 기록하였다. 민강은 대도하(大渡河)에 유입되어 양자강 본류에 들어가는 강으로 대도하에 비하면 유량이나 길이에 있어 훨씬 못 미치지만 민강에는 중국 최대의 관개용 수리시설인 도강언(都江堰)이 있어 이의 경제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여 하천의 발원지를 강의 길이의 길고 짧음보다 물의 신비성이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통수에 관한 고지지의 내용을 검토하면 앞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始源)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그들 나름대로 일관된 정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설정한 옛사람들의 발원지 개념이 잘못되었다거나, 발원지역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적용하는 개념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통수는 고대사회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점, 고려시대부터 기록이 보존된 점,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아 한강의 역사적 발원지의 하나로서 설정되어 보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②금대산 북쪽 기슭

이런 집수역에서 모여진 물은 하류의 어느 지점에서 샘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발원지를 집수역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모든 하천의 발원지는 집수역의 맨 꼭대기 지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천의 발원지는 집수역의 산 이름이나 집수역에 제일 가까운 마을 이름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하천의 발원지를 특정 지점으로 정하기보다는 집수역의 전체를 발원지역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양자강의 발원지를 민산으로 한 점이 그러하고 일본의 신통

천의 발원지는 신통천 최상류의 천상촌(川上村)으로 하고 있다. 천상촌은 신통천 최상류의 산 기슭의 마을이지만 산쪽으로 하천이 연장되어 있는 데도 이 마을과 집수역이 되는 산을 발원지로 하고 있다.

발원지를 집수역의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후조건에서는 한 강에 대해 계절별로 강수량별로 여러 지점이 발원지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하천의 유로 연장을 기준으로 발원지를 설정한다면 침투성이 큰 암석이나 토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발원지가 달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대산 북쪽 계곡은 한강의 하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한강의 최상류 하천의 집수역(Watershed area)으로 한강의 발원지(發源地) 혹은 발원지역(發源地域)으로 설정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③검룡소

한강유역의 기후나 지형적 조건, 지질적 조건이 하천의 끝부분을 정의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발원지로 지정하기보다는 하구의 기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천의 집수역을 한강의 발원지(역)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발원지역에서 특정 지점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갈수기에도 유량이 관찰되고 유로가 창죽천까지 연장되어 있는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점(發源地點), 혹은 발원소(發源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④제당굼샘

제당굼샘은 한강의 발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샘 중에서 가장 상류에 있는 샘으로 알려져 있다. 제당굼샘 상류에 서들이 발달된 점으로 미루어 이 샘 상류에 자연적으로 샘이 발달되기 어렵고 한강의 발원지내에 위치한 샘이므로 이를 한강의 발원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로의 발달 정도, 창죽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물의 흐름의 연속성이 미약한 점으로 미루어 한강의 발원샘 정도로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한강 발원지에 대한 지지, 문집 등의 문헌을 검토하고 발원지로 거론된 우통수, 금대봉 북쪽기슭, 검룡소, 제당굼샘 등에 대해 현지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고기록에 나타난 한강의 원(源), 시원(始源) 혹은 근원(根源)등은 오늘날의 하천 발원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②조선시대 한강의 발원지로 설정되었던 우통수는 당시의 발원지 설정기준에 의한 것이고 유적이 보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한강의 문화적 발원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③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금대봉 북쪽 기슭은 한강 최상류 하천의 집수역이므로 이를 한강의 발원지(發源地) 혹은 발원지역(發源地域)으로 설정함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④한강의 발원지에서 특정 發源地點을 거론할 때는 금대봉 북쪽기슭의 검룡소가 상시 유량이 관찰되고, 유로가 한강의 상류 하천까지 연장되는 점으로 보아 발원지(發源地) 혹은 발원소(發源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⑤제당곰샘은 그 흐름의 불연속성, 유로의 미발달 등으로 미루어 발원지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샘 상류에 분포된 서들로 인하여 상류에 샘이 발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강의 발원샘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⑥한강 발원지로 거론된 지역이나 지점에 대하여 훼손되기 전에 지표조사 등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江原監營 1829-1931, 關東誌

江原大學校 博物館 1987, 平昌郡의 歷史와 遺蹟

江原日報 1986, 4. 8

江原日報 1986, 8.14

江原日報 1987, 1. 25

建設部 1979, 韓國河川流域圖

建設交通部 2000, 한국하천일람

權近 陽村集

金剛山 1989, 太白의 地名 由來, 太白市 文化院

김윤우 1999, 오대산의 역사지리, 신토불이 건강 통권 43호

金正浩 1866, 大東輿地圖

金正浩 1866, 大東地志

孟至大 1788 江陵府誌, 山川 于筒水出於五臺山西臺之下西流達于漢在府西一百五十里(私撰邑誌)

閔漬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五臺山月精寺史蹟(한국불교문화원,

월정사에서 재인용)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85, 漢江史, pp.1159

신경준 1908,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양보경 1991, 고산자 지지의 현대적 평가, 한국지리학회 제26권 2호,
pp.164-173

柳馨遠(1622-1673) 東國輿地 卷七 江陵條

尹斗緒 1710, 朝鮮輿地地圖

尹廷琦(1814-1879), 東寶錄, 卷 3

李肯翊 1776, 燃藜室記述

李萬敷(1664-1732) 地行錄, 地行附錄, 五臺條

李祐炯 1991, 大東輿地圖 東輿圖 註記, 匡祐堂

李重煥 1714, 擇里志(八域地) 八道總論 江原道

李 荇 等 1530, 신증동국여지승람

李炯石 1981, 漢江의 發源地/그 실상과 허상, 월간 산(5월), pp.174-182

李炯石 1982. 정신문화 가을호

李炯石 漢江研究 2권

一然 三國遺事 卷 3, 塔像, 臺山五萬眞身條

전상호, 2000, 한강 발원지의 역사성 구명,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 중앙박물관·평창군, 2004, 우통수 지표조사

朝鮮世宗實錄 卷 153, 江陵條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1918, 近世韓國 1/50.000地形圖

崔南善 1942 朝鮮의 江河, 육당최남선전집

韓國佛教文化院, 1988, 月精寺, 一志社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民族文化大百科辭典

許穆 眉垂全集

玄岩社 1980, 國語大辭典

NHK Techno-Power Project, 世界の 巨大建設 1, 1993

Robert L.Bates and Julia A. Jackson, 1980, Glossary of Geology 2nd
Ed. American Geological Institute

후기: 이 글은 2000년에 발표한 필자의 “한강 발원지의 역사성 구명, 강원발전연구원” 과 2004년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실시한 “‘우통수 지표조사’, 강원대 중앙박물관과 평창군” 의 원고를 토대로 그 후 조사된 내용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주제2

태백 검룡소 (太白 儉龍沼) 명승 제 73호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소고

2010. 12. 28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함 석 종

태백 검룡소 (太白 儉龍沼) 명승 제 73호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소고

< 목 차 >

제1장. 시작하는 말

제2장. 개발여건분석

제3장. 태백 검룡소 (太白 儉龍沼)의 보전과 개발 구상

제4장. 사례연구-생태관광(Ecotourism)의 전개

제5장. 발원지 보전 및 활용 기본 방향

제6장. 맺는 말

제1장. 시작하는 말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1987년 국립지리원에 의해 최장 발원지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태백 검룡소(太白 儉龍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명승 제 73호로 지정되었다. 지정사유로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로 보전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검룡소는 명실공히 한강의 발원지 그리고 한국의 명승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백 검룡소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개발여건분석

1. 국제관광동향

1) 관광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 높아짐

▶ 정보통신, 환경 등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

-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산업 등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10년 관광산업의 GDP는 전세계 GDP 점유율 9.2%에서 '20년에는 9.6%(세계 총고용자의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 명까지 성장 전망

- 세계관광시장은 '10년 연간 10억 명, '20년에는 연간 15억 명 이상(세계인구의 약 20%)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0년 1억 9,500만 명, '20년 3억 9,700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

▶ 동북아시아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지속 성장

- 동북아 관광객 수는 '95년 4억 4천만 명에서 '20년 22억 4천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중·일·홍콩의 4강 구도 형성, 2020년에는 국제관광객 4명중 1명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

▶ 중국 관광시장의 동북아 관광시장 성장 리드

- UNWTO에 의하면 '20년까지 아태지역의 역내·외 관광 성장률은 각각 6.7%와 5.9%로 예상되어 세계 6대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국은 '20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을 통해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관광산업의 국가GDP 기여율은 '08년 12.2%이나, '18년에는 1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북아 관광시장 국가들중 최다 방문국임과 동시에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3)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와 관광행태 패러다임 변화

▶ 국제적 그린 코드 등장으로 인한 녹색관광의 중요성 증대

- 21세기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자연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구 차원의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발표된 이래 '07년 '다보스 선언(Davos Declation)'을 채택하면서 저탄소 녹색관광이 논의됨
- UNWTO는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및 관광형태의 영향을 인지하고 항공 및 숙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등 각국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요청함

▶ 소득수준향상 등으로 인한 다양한 관광형태의 변형 확산

- UNWTO에서는 21세기 관광환경에 대하여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인해 Free-Plan SIT(Special Interest Tourism) 증가, 정보수집 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다양한 관광형태의 변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IT 정보기술의 발달로 관광 정보 검색의 능동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량관광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공정여행(fair travel)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등장함)

▶ 정보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관광소비 변화 가속

- 최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식, 정보, 예술,

- 세계 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에는 전체인구대비 약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관광행태가 세분화되어 실버관광, 건강치유관광 등의 새로운 관광행태가 등장)
- 관광에서 건강·웰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다른 분야와 복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확대·재생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웰빙과 연결된 농어촌 관광 패키지 상품화, 슬로시티 및 슬로푸드 운동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2. 한국관광동향

1)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

▶ 국민 국내관광수요의 지속적 성장 추세로 '12년 5억 2천만 명 예상

- 국민 국내관광수요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의 대내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관광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국민 국내관광 시장수요는 '99년 3,301만 명에서 '08년 3,739만 명으로 연 약 49만 명씩 증가하였으며, 이동총량은 '99년 2억 7천만 명에서 '08년 4억 명까지 증가하였음
- 국민 국내관광총량은 '99년 숙박관광이 당일관광의 총량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1박 이상의 숙박관광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 숙박관광의 증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처분 소득 증가, 고속철도 개통 등 국내외 관광관련 제반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한 증가하였음
- 증가추세인 국민 국내여행은 '12년까지 연평균 4.46%씩 증가하여, '12년에는 527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 국내관광 참여 횟수와 1인당 관광비용 증가

- 국민 국내관광의 행태를 분석하여 보면 '99년 이래로 국민 국내여행 경험률, 국내여행 참여회수, 1인당 여행 비용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민 국내관광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요소들이 매년 증가와 감소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래관광객 증가로 '12년 783만 명 예상(정책목표 2020년 2,000만 명)

- '08년 외래관광수는 689만 명을 넘었으며, 전년대비 약 6.7%의 성장률을 보였음
- 지난 10년간 외래관광객의 방한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로, '20년 까지 연간 4.05%의 성장률로 1,07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과 지출비용 등의 지속적 증가

- 외래관광객의 주요 방한 목적은 여가/위락/휴가가 '06년 43.6%에서 '09년 47.6%로 증가하였으며, 이외 사업/전문활동은 '06년 42.6%에서 '09년 36.3%로 다소 감소하였음
- 여행 행태에 있어 개별여행이 증가('09년 62.4%), 단체여행이 감소('09년 26.7%) 등 개별관광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 관광시장 공급의 확대 추진

▶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 관광, 생태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장기적으로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 → 인프라 등 관련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방문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융합 상품 개발 본격화

- 여가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STAR형 여가<자기개발(Self-development), 외모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방콕족(Rest-at-Home)의 행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모바일 산업지형을 바꾼 애플사의 앱스토어(App store)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모바일 관광정보 검색이 더욱 편리해지고 관광상품의 전자상거래도 증가할 전망임

〈표 1〉 타산업과 관광산업간 복융합 유형

유 형	주요 내용
축제관광	-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 축제를 관광상품화
의료관광	-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웰빙관광	- 휴양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
음식관광	- 지역 특산물과 고유 음식의 공급, 유통 및 소비의 통로로 관광활동을 유발
스포츠관광	- 스포츠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켜 상품화하는 관광형태
영화관광	- 영화, 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영화제, 세트장, 촬영지 등을 관광 상품화 하는 관광형태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관광산업 복융합 촉진 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이 관광산업 전부분에 적용 확산

- 정부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의 관광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서도 탄소배출감소, 녹색관광 등 많은 책임이행과 권장사항 요구를 확대하고 있음
-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09)을 통해 관광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특히, 생태자연관광은 대규모 시설조성 중심의 관광개발이 아닌 지역이 보유한 특색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관광지 개발을 추구하고 있음(생태관광과 자연관광은 전체 관광시장 성장률보다 3배가 빠른 연간 20% 이상 성장하면서 2012년 점유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3) 검룡소(劍龍沼)와 주변지역의 보전 및 활용 현황

(1) 검룡소의 현황

1987년에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된 검룡소는 금대봉 기슭에 있는 제당굼샘과 고목나무샘, 물골의 물구녕 석간수와 예터굼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이곳에서 다시 솟아난다. 둘레 약 20m이고, 깊이는 알 수 없으며 사계절 9℃의 지하수가 하루 2,000~3,000t씩 석회암반을 뚫고 솟아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는 광경은 장관이다. 오랜 세월 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깊이 1~1.5m, 너비 1~2m의 암반이 구불구불하게 패여 있다.(두산백과사전)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 산 1-1 금대봉 북사면에 있는 용천으로 지하수맥이 석회암동굴과 연결되어 있어서 동굴의 밑바닥이 계곡과 연결되어 용출수가 흘러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2) 검룡소의 전설

검룡소(劍龍沼)는 검룡이 살고 있는 못이라 하여 검룡소이며 이곳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검룡이 내뿜는 물줄기라 하여 검룡수라 부른다.

“옛날 서해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헤맸다. 이무기는 이곳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이 연못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수업을 하였다. 그 때 이무기가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친 자국이 지금 검룡소에서 쏟아지는 폭포인 것이다. 이 이무기는 심심하면 인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시러 오는 소를 잡아먹기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메워버렸다”는 전설이 있다(태백시청 내부자료, 2000).

(3) 검룡소 주변(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전지역

① 개요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에 걸쳐 있는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의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동쪽은 매봉산(1,303m), 남쪽은 함백산(1,573m), 북쪽은 대덕산(1,307m)으로 둘러싸인 면적 약 38만 950㎡의 지역을 1993년 환경부가 강원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대는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에는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며, 한여름에는 집중폭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용소, 제당굴샘이 있으며, 예전에는 금광산이 있었다.

② 특징

- 위치 : 태백시 창죽동 대덕산·금대봉 일원
- 면적 : 4.2km²(창죽동 산1-1 등 48필지)
- 지정이유 : 특정 야생 동식물 집단 서식지인 대덕산·금대봉 일대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함
- 자연식생 및 서식 동식물 :
 - * 자연식생 : 7개의 산림군락, 1개의 식대림(층층·사스레나무군락, 신갈·조릿대군락 등)
 - * 동물상 : 포유류 13종 316개체, 조류 9목 25과 464개체, 양서·파충류 2목 5과 9종, 곤충류 11목 48과 107종
 - * 식물상 : 총 81과 455종(고유식물 15종, 희귀식물 16종)
 - * 고등균류 : 34속 52종 76점(식육버섯 21종, 독버섯 4종 등)

<표 2> 대덕산·금대봉 일대의 서식 동식물

참평의다리·섬기린초·터리풀·노랑갈퀴·금강제비꽃·할미밀망·좁은단풍·두메기름나무·도라지
모시대·분취·털개불알꽃·홀아비바람꽃·누른종덩굴 등 한국특산식물 15종과 털댕강나무·왜
미나리아재비·바이칼바람꽃·나도바람꽃·나도양지꽃·흑썰기풀 등 희귀식물 16종, 대성쓴
풀·한계령풀·공작고사리·나도파초일엽·덩굴용담·노랑무늬붓꽃·가시오갈피·주목·땃두릅나
무·두메닥나무·사장분취·큰제비고깔 등 특수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23
호에 속하는 참매·새매와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검독수리 등이 발견되었다. 고한읍 쪽의
두문동계곡에는 도마뱀, 한소리계곡에는 도롱뇽, 창죽계곡에는 꼬리치레도롱뇽의 집단서
식지가 있고, 곤충류 가운데 한국미기록종 13종도 발견되었다.

③ 대덕산·금대봉

- 대덕산 : 해발 1,307m로 태백시 북측 하장면 원동리와 한소리 경계에 위치하여 산위
는 수십만평에 달하는 평지이며 산정상에는 나무가 별로 없고 갈대 등으로
천연초지가 형성되어 있음
- 금대봉 : 해발 1,418m로 태백시 창죽동과 회전동, 정선군 고한리 경계에 위치하여 주
목을 비롯한 원시림 상태의 군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발원지인 검룡
소, 고목나무샘, 제당굼샘 등이 있음

(4) 주변 관광자원

① 황지연못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로 태백시내 중심지에 있는 황지공원의 커다란
비석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지·중지·하지로 이루어진 둘레 100m의 소(沼)에서 하루
5,000t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물은 태백시를 둘러싼 태백산·함백산·백병산·매봉
산 등의 줄기를 타고 땅 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 것으로, 시내를 흘러 구
문소를 지난 뒤 경상남도·경상북도를 거쳐 부산광역시의 을숙도에서 남해로 유입된다.

② 태백산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영월군·태백시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1,567m이다. 설악
산·오대산·함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영산’으로 불린다. 최고봉인 장군봉(將軍
峰:1,567m)과 문수봉(文殊峰:1,517m)을 중심으로 비교적 산세가 완만해 경관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웅장하고 장중한 맛이 느껴지는 산이다.

산 정상에는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天祭壇:중요민속자료 228)이 있어 매년
개천절에 태백제를 열고 천제를 지낸다. 볼거리로는 산 정상에 고산식물과 주목 군락, 6월 초
순에 피는 철쭉이 유명하다. 태백산 일출 역시 장관으로 꼽히며, 망경사(望鏡寺) 입구에 있는

용정(龍井)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솟는 샘물로서 천제의 제사용 물로 쓰인다.

그 밖에 태백산석장승(강원민속자료 4), 낙동강의 발원지인 함백산 황지(黃池), 한강의 발원지인 대덕산(1,307m) 검룡소(儉龍沼) 등의 주변 명소도 찾아볼 만하다. 1989년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등산객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③ 태백산 천제단

1991년 10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3m, 둘레 27m, 너비 8m의 제단으로 태백산 정상에 있다. 산꼭대기에 이와 같은 큰 제단이 있는 곳은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제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령과 백성들이 이곳에서 천제를 지냈으며, 한말에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우국지사들이 천제를 올렸다. 특히 한말 의병장 신돌석은 백마를 잡아 천제를 올렸고 일제 때는 독립군들이 천제를 올린 성스런 제단이다. 위쪽은 원형이고 아래쪽은 사각형이며, 녹니편암의 자연석을 쌓아 만들었는데, 이러한 구도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 때문이다. 10월 3일 개천절에는 이곳에서 천제를 지내며,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화를 채화한다.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추인 산으로 예로부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 때에는 137년 일성이사금 5년 10월에 왕이 친히 북순하여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300년 기림이사금 3년에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내니 낙랑, 대방의 두 나라가 항복하여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④ 태백시의 산업과 특산물

농축산업: 경지면적 796ha 중 밭이 786ha, 논이 10ha로 밭이 대부분이며 농가는 총가구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은 감자와 옥수수 및 고랭지 채소 생산이 중심인데, 주로 해발 1,000m 지대에서 무·배추·양배추의 생산이 많다. 또, 주변 산지사면에는 초지(草地)가 많아 목축에 적합한데, 최근 젓소·돼지·칠면조 사육 및 양봉도 활발하다.

임업: 산림면적 2만 3,977ha 중 침엽수림이 59.9%로 침엽수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1ha 당 입목축적량도 31.6m³로 많은 편이나 광산 주변의 벌목 및 폐석으로 인한 삼림의 파괴가 심각하다. 주요 임산물로 목재생산이 많으며, 목재는 대부분 광산용 갱목으로 사용된다.

광공업: 탄전지대에서는 무연탄 약 5천만 톤, 석회석 약 5억 2천만 톤, 그 밖에 금·은·철 등 풍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60~70년대에 석탄이 국가의 주요 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채굴이 활발했다. 그러나 87년 말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영세탄광 정비작업이 실시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태백 정선 지역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장, 골프장, 스키장을 포함한 종합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대체산업 육성과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특산물: 태백산 한약재 · 태백산 김치 · 태백산 산나물 · 태백총명우유 · 세라믹 화장품 · 청정 참기름 · 들기름 · 화훼 · 버섯 고랭지 채소 · 고산쌍화차 등이 유명하다.

⑤ 정선아우라지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 5리를 흐르는 강으로 정선읍으로부터 19.4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삼척시 중봉산에서 흐르는 임계면의 골지천이 이곳에서 합류하며 어우러진다고 하여 아우라지라고 한다. 이곳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로, 이곳에서부터 강이라고 부른다. 누추산 · 상원산 · 옥갑산 · 고양산 · 반론산 · 왕재산 등에 둘러싸여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강변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고, 합수지점에는 아우라지 처녀상과 최근에 지어진 정자각이 있다. 여량 8경의 하나이다.

이곳에는 각지에서 몰려온 뱃사공들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선아리랑》〈애정편〉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전설에 의하면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아우라지를 가운데 두고 각각 여량과 가구미(가금)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둘은 싸리골로 동백을 따러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 나룻배가 뜰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의 안타까움이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싸리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사시상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라는 가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구미와 여량 마을에는 나루터가 남아 있다.

매년 7~8월에 2,000m²의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오장폭포 · 항골계곡 · 화암동굴 · 화암약수터 등 관광지가 많다. 정선에서 여량이나 구절리행 시외버스가 운행되며, 4~11월에 매월 끝자리가 2, 7일로 끝나는 날마다 서울특별시 청량리역에서 정선역까지 열차가 운행된다. 정선선은 강원도 정선군의 민둥산역과 아우라지역을 연결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노선으로, 태백선의 지선이다. 이러한 정선선 철도 가운데 열차운행이 폐지된 아우라지 - 구절리 간의 7.2km 구간에는 관광용의 레일바이크 및 열차 아리아리호가 운행중에 있다.

⑥ 민둥산

강원도 정선군 남면과 화암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117m로, 산의 이름처럼 정상에는 나무가 없고, 드넓은 주능선 일대는 참억새밭이다. 능선을 따라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30여 분은 억새밭을 헤쳐 가야 할 정도이다. 억새가 많은 것은 산나물이 많이 나게 하려고 매년 한 번씩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억새에 얽힌 일화도 있다.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 한 마리가 마을을 돌면서 주인을 찾아 보름 동안 산을 헤맸는데, 이후 나무가 자라지 않고 참억새만 났다고 전한다. 억새꽃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피며, 해마다 10월 중순에 억새제가 개최된다. 산 자락에는 삼래약수와 화암약수가 있다.

산행은 증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해발 800m의 발구덕마을에 이른 다음 왼쪽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억새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주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른 뒤 발구덕마

을을 거쳐 증산마을로 하산한다. 약 9km 거리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하산은 정상에서 억새군락을 지나 북쪽의 지역산(1,117m)을 오른 뒤 불암사를 거쳐 화암약수로 내려오는데, 14km 거리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동차로 발구덕마을 입구에서 산행하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주변에는 가리왕산(1,560m)과 아우라지 나루터 등의 명소가 있다. 민둥산역(증산역) 주변에 숙박 시설이 있고, 화암약수 부근에 야영장이 있다.

⑦ 용연동굴/화암동굴

용연동굴(龍淵洞窟)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이고, 태백시 화전동 산 47-1 소재하고 있다. 화전동의 용소골 산등성에 자리한다. 약 1억 5천만년에서 3억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석화동굴이다. 동굴 속에는 각종 석순과 종유석이 즐비하고 특히 동굴 중간에 폭과 높이가 약 30m, 길이 약 150m 정도 되는 광장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1966년 4월 7일 한·일 합동 동굴조사 때 동양에서 처음으로 초동굴성갑충, 긴다리장님좁막정벌레,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옛새우와 장님톡톡이 등 6종의 생물이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다.

화암동굴은 1980년 2월 26일 강원도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총 관람 길이는 약 1,803m이다. 금을 채광하던 천포광산 상부갱도 515m와 상부갱도와 하부갱도를 연결하는 365개의 계단, 하부갱도 676m로 이뤄져있다. 금광맥의 발견에서부터 금광석 채취까지의 전 과정을 재연해 놓았으며, 금광석의 생산에서 금제춤의 생산 및 쓰임까지 전 과정을 전시해 놓았다.

⑧ 환선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新基面) 대이리(大耳里)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서 주굴 길이는 약 3.3km이고, 총길이는 약 6.5km이다. 환선굴을 포함한 대이리동굴지대는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굴은 대체로 북향으로 전개되며 안쪽 80m 지점에 둘레 20여m의 거대한 석주가 서 있고, 그곳에서 북굴·북서굴·중앙굴·남굴의 4갈래로 갈린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노년기 동굴로, 종유석의 발달이 퇴폐적이나 윤회재생(輪廻再生)의 과정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동굴류(洞窟流)의 발달이 탁월하며, 동굴동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⑨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舍北里)에 있는 복합 리조트 시설로서 해발고도 883m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이다. 폐광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사업인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 이후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8년 6월 강원랜드(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9월 스몰카지노호텔을 착공하여 2000년 10월 개장하였다. 2003년 4월에는 메인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를 공식 개관하여 멀티 리조트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가족형 리조트, 2006년까지는 세계적인 종합 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운산 정상과 산 아래 계곡을 조망할 수 있는 호텔에는 100여 개의 객실 외에 연회장·사우나·수영장·피트니스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카지노는 테이블 100대, 슬롯머신 960대를 갖춘 국내 최대규모이다. 테마파크 어드벤처팰리스는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2층 시설로서 우주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 미라클월드와 지하 1층의 센트럴프라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HIGH1 스키장, 콘도를 개장하였다.

그밖에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중독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의 역할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5일부터 한국도박중독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3년 10월에는 폐광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자활의지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복지재단을 창단하였다. 2001년 10월 코스닥에 등록하였고, 2003년 9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⑩ 기타

태백산눈꽃축제, 태백02리조트, 태백풍물시장, 정선아리랑제, 정선5일시장, 민둥산역세풀축제 등과 같은 주변 관광자원들이 있다.

3) SWOT분석

SWOT 분석은 검용소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개발여건을 분석하면서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관광 및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찾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요인을 찾아 각각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는 방법이다.

< 표 3 > SWOT 분석

S(강점)	W(약점)	O(기회요인)	T(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 * 청정성 * 생태성 * 개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 개발 제한성 * 수용태세 미비 * 가치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정책 * 생태·체험관광 * 4대강 사업 * 자연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부정적인 입장(자연보호단체 등) * 개발 및 투자비 확보

4) 보전과 개발의 문제점

태백 검용소의 보전 및 활용상 문제점은 많은 부분이 지적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10개 항목과 살펴본다.

①중요성 인식 부족

-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천의 발원지에 대한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점차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물 부족 국가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전 국민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②보전과 활용 프로그램의 미흡

- 발원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관련단체가 관심이 부족, 능력의 부족, 인식의 부족으로 역할 수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③발원지 이용객 통제체계의 미확립

- 발원지와 주변 유역,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들의 부분별하고 마구잡이식 이용으로 발원지에서부터 수질이 오염되고 주변지역의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④발원지의 상징성, 이미지 부각의 부족

- 발원지로서의 상징성이나 청정 이미지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⑤연구조사활동의 태만

- 발원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조사가 미흡하고 연구의 계속성이 없으며 이를 위한 조직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⑥구획(zonning) 개념의 불분명

- 발원지를 핵으로 한 구획(zonning) 개념이 명확치 않음으로써 이를 둘러싼 완충지역 및 전이지역들에 대한 활용이 불가능하다.

⑦운영관리 예산 및 조직 불비

- 환경예산액 편성이 적고 이를 위한 조직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⑧발원지 및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가 부재

- 방문자 및 이용자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수준의 향상과 경험의 질 향상을 생태보전지역의 전문적 해설가가 없으므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⑨지역주민의 참여부족

-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⑩생태관광, 녹색관광의 미도입

-생태관광,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정립과 지도, 컨설팅이 안되고 있어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이러한 발원지 보전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보전과 활용 개념을 도입하여 바람직한 발원지 보전과 활용 모델과 지역개성에 맞는 고유한 보전 및 활용 기법의 개발이 제시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과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개념을 접합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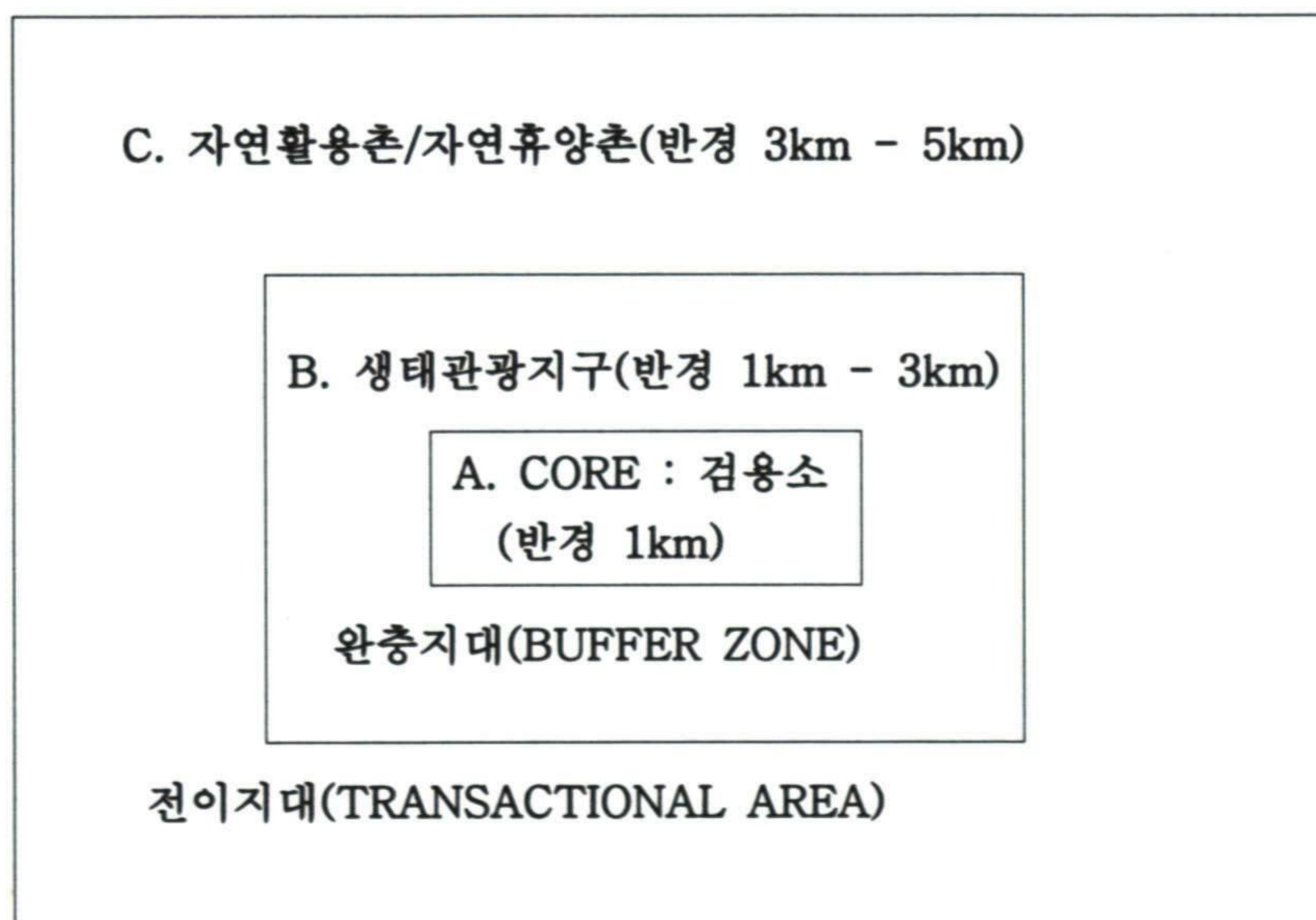
제3장. 태백 검룡소 (太白 儉龍沼)의 보전과 개발 구상

1. 개발구상

1) 핵(Core:검룡소)의 보전 - A지구

- 검룡소를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지역인 핵심지역에는 자연상태의 보존과 검룡소의 시각경관(보여 주는 방법)의 연출이 필요함 : 어느장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하는 point(보는 지점, 사진촬영 지점)의 결정

- 접근로를 따라 이동공간의 연출이 필요함(검룡소로의 어프로치)
-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없음



2) 생태관광지구(완충지대) - B지구

- 검룡소 주변 3km 지역을 생태관광지구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검룡소

및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이동공간을 연출할 필요가 있음
- 향토자연박물관 : 지역의 고유한 동식물들의 박물관으로 실내외에 걸쳐 토종의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옥외에는 생태교육 및 체험장으로 기능하게 함
- 삼림욕장 : 숲을 조성하여 삼림욕장을 조성함
- 로방간이시설(路傍簡易施設: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나 유원지 등에 부설하는 시설)로서 이용자의 지도 및 유도, 자연에 대한 인상이나 이해 심화, 제한 및 금지 사항 표시, 자연보호 및 미화의 계몽,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함
- 이러한 시설의 종류는 입구시설, 지도표, 안내판, 해설판, 지명판, 주의 표식, 방향지시판, 전망대, 음료수 시설, 쓰레기통, 탁벤치, 노방휴게지, 화장실 등이 있음
-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통일성, 일관성 있는 정비가 요망되며 풍치상, 관리상 용이성을 고려해서 자연적이고 단순·견고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하며 색채도 자연과 조화 있게 함
- 주차장은 입구(반경 3km 밖)에서 다소 떨어진 곳, 넓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며 안내소나 관리소와 접하게 함

3) 자연활용촌/자연휴양촌(반경 3km - 5km:전지구) - C지구

- 관리센터, 체험농원, 화원, 과수원, 잔디광장, 캠프장, 롯지, 펜션, 옥외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의 시설을 도입함
-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수급 받음

제4장. 사례연구-생태관광(Ecotourism)의 전개

1. 序

발원지의 보전과 활용 방안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여가시간의 증대, 가처분소득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과 생활환경의 악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의 침투는 대중관광(mass tourism)현상을 초래했고 1980년대의 관광개발, 리조트개발의 붐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생태관광(eco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란 개념이 생겨났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생태관광이란 환경보전과 관광활동을 조화있게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광생태계의 환경에 기초한 관광의 형태이다. 환경인식을 갖고 특이한 자연환경과 야생 및 생물자원을 가진 관광생태계를 관찰, 학습, 체험하는 활동이다. 다음에서 자생적 생태관광을 전개한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 개발과 보전, 관리의 성공 사례로 日本 滋賀縣 朽木村(くつきむら)의 경우를 살펴 본다.

2. 전개의 장과 활동의 경위

1) 朽木村(くつきむら)의 概況

朽木村(くつきむら)은 日本 滋賀縣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大津市와 京都市의 두 도시의 시내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大阪市의 중심에서 약 80km 지점에 있다. 丹波山地의 북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서 약 24km, 남북 약 16km로 면적이 약 165km²에 이르는 지역이다. 주위는 450~900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면적의 약 93%가 삼림으로 된 산촌이다. 마을의 동부에는 단층계곡이 있고 남부에는 3개의 개천이 흐른다. 이 지역은 1960년에는 인구가 4,500명을 넘어섰었으나 1994년에는 2,500명으로 감소했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임업과 땃감을 생산해왔으나 고도경제성장기에 연료혁명과 산업구조조정으로 과거 1차산업인 농림업이 제1의 취업인구를 차지했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어 세 번째가 되었다. 1971년에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진흥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1976년 마을관광협회가 발족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건의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관광이벤트는 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회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년중 계속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게 된 것은 1982년 촌영(村營) 스키장이 개설되면서부터이다. 朽木村(くつきむら)은 리조트개발과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전개한 대안관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현장학습시설의 입지와 사업 전개의 경위

朽木村(くつきむら)의 관광 발전의 촉매제였던 **아사히 숲(朝日の森)**은 1950년대까지 땃감용 신탄림(薪炭林)과 퇴비용 채초지(採草地)로 이용되어 왔던 곳으로 밤나무와 관목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숲이었다. 아사히 신문 오오사카 후생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아사히 캠프가 주변 계곡 상류에 야외교육을 위한 캠프장을 개설했고 1978년에는 아사히 신문사 오오사카 본사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財)森林文化協會가 설립되고 이 협회가 삼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삼림환경기지의 모델로서 **아사히 숲(朝日の森)**을 조성하게 되었다. 자연교육을 기본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자연연구소(1979년)와 계획적인 삼림의 육성·관리를 담당하는 삼림환경연구소(1980년)가 이 부지내에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활동은 삼림을 기반으로 한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힘든 코스의 하이킹, 등산, 오리엔티어링, 둘째는 놀이기구에 의한 체력단련 등 단순한 것, 셋째는 숲속의 산책과 자연관찰, 넷째는 길만들기, 나무심기, 풀베기, 가지치기, 묘목밭 일 등의 작업이다. 그리고 야외교육 프로그램은 단계에 따라 삼림과 관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3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자연에 친숙하기’로 야외생활과 야외놀이를 통해서 자연과 친숙해지면서 자연과 만나는 것을 배운다. 2단계는 보다 더 깊은 자연과의 관계를 가지며 이해를 깊게 한다. 3단계는 실제로 삼림을 육성하는 작업에 참가한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 따뜻함, 냉엄함이 볼수 있게 된다. 연구소 조직의 특징은 소수의 직원외에 4

년제 대학생들로 구성된 녹색봉사대원(green volunteers)들이다. 이들은 방문자들에게 야외 생활과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방문자가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삼림의 육성·관리에 참가하고 식재, 풀베기, 삼림의 조사 등을 행한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영리조직(NPO)이 주체된 생태관광의 특징이다. 녹색봉사대원(green volunteers)이 될 수 있는 조건은 ①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높을 것, ②삼림의 육성·관리에 관련이 있을 것, ③봄, 여름, 겨울의 방학기간 중 통산 40일 이상을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④4년간 활동이 가능할 것을 내용으로 매년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3. 지역진흥에의 파급효과

1) 朽木村(くつきむら)의 진흥책

朽木村(くつきむら)는 1980년 제2차 과소지역 지정을 받아 과소진흥계획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1984년에는 ‘그린파크 추억의 숲(グリーンパーク思い出の森)’의 정비를 시작한다. 아사히 숲을 자연교육의 기지로 위치부여하고 **추억의 숲**은 관광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진흥기지로 구상했다. 이러한 추억의 숲에 관광레크리에이션 기능, 특산품 제조판매 기능, 삼림문화창출 기능을 부여했다. 추억의 숲의 도입을 계기로 촌과 5개의 민간 경제단체(삼림조합, 어업조합, 농업협동조합, 상공회, 관광협회)가 합세해서 조직된 제3섹터인 財)마을재건공사가 탄생한다. 추억의 숲에는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촌외(30%)에서도 채용됨으로써 촌외로도 효과가 파급되었다. 1991년에는 역내(域内)에 온천이 개발되어 추억의 숲은 온천장으로도 기능하면서 삼림욕, 캠핑 등의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림내에 방갈로와 캐빈 등의 시설도 건설되면서 명실공히 성공적인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아사히 숲(朝日の森)**이 朽木村(くつきむら)에 미친 효과라고 하겠다.

2) 환경학습시설의 새로운 전개

1990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1992년에 현립朽木生態體驗마을센터가 도입되었고, 환경청 자연환경보전활동 거점정비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자연관찰지구(zone)가 설정되어 자연관찰 등의 체험을 통해서 자연보호의식의 함양과 자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아사히 숲(朝日の森)**과 **그린파크 추억의 숲(グリーンパーク思い出の森)**이 같은 지역에 병존하면서 상호보완작용을 함으로서 새로운 관광의 대안으로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능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4. 結

본 사례에서는 **아사히 숲(朝日の森)**의 활동과 그것이 朽木村(くつきむ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사히 숲(朝日の森)**의 활동은 환경학습의 다양성을 보여 주었고 그것이 朽木

村(くつきむら)의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단순한 야외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삼림을 정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것은 지역의 보전에 NPO가 관여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환경학습과 일체화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거점정비라고 하는 시책은 환경관리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삼림의 정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작업장의 정비 그 자체가 환경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농림업을 대신해서 서비스업이 환경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 마을의 자연생태계의 관리를 위한 마을단위의 공사의 역할도 주목해 볼만하다. 더 나아가서 녹색자원봉사단의 참가형태도 독특하다. 따라서 이는 생태관광의 새로운 차원을 예시해 주는 예라고 하겠다.

제5장 발원지 보전 및 활용 기본 방향

1. 발원지 보전의 필요성

지구탄생의 역사에서 물은 최초로 생긴 물질 중의 하나이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고 부르는데도 모른다.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 8천 5백만 km^2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바닷물이 97%인 13억 5천만 km^2 이고 나머지 3%인 3천 5백만 km^2 가 민물이다. 민물 중 69% 정도인 2천4백만 km^2 가 빙산 또는 빙하의 형태로 되어 있고 지하수가 29% 정도인 1천만 km^2 정도이며 나머지 2% 정도인 1백만 km^2 가 호수, 늪, 강, 하천, 계곡 등의 지표수가 있다. 하천이나 강에 있는 물의 양은 지구 총 수자원의 0.0001%인 1,200 km^2 에 불과하지만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는 아주 귀중하다. 세계인구의 약 40% 정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한국도 물부족 국가로 부류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개발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물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은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천연자원이지만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수자원은 점차로 부족하여 지고 수질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흐르는 물의 원천인 발원지 및 발원지 유역에 대한 오염방지와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원지 유역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의 물은 신선한 많은 양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마셔도 되는 1등급의 물이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게 된다. 따라서 발원지뿐만 아니라 발원지 주변의 농산촌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시설,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을 특화단지(문화마을, 축산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로 재정비하여 문화생활의 공간,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발원지 유역에서부터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관광대중화 현상은 일반대중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도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관광현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

며 관광의 형태도 대중관광에서 대안관광의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형태의 다변화로 물이 깨끗한 곳이라는 이미지 하나 만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발원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보다 더 깨끗한 곳에서, 보다 청정한 자연에서 잠시나마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 긴장완화, 삶의 의욕고취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관광객수나 관광행동은 많은 환경오염과 파괴를 낳는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발원지나 발원지 유역을 방문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해 지역이 하루아침에 환경파괴, 수질오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2. 발원지 보전과 활용의 방향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경제개발, 산업개발의 개발중심의 철학은 우리 국토, 삼천리 금수강산을 병들고 멍들게 해왔다.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보다 청정환경의 유지가 삶의 질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중심 테마를 이루고 있다.

발원지의 보전 및 활용 방향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강 발원지인 한 지점과 그러한 발원지를 둘러싼 유역에 대한 공간축으로의 접근 방안 즉, 보전을 위해서 발원지의 일정범위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활용을 위해서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차원에서 보전과 관광매력을 창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개념으로 발원지 보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 발원지 보전과 활용 방안 - 생물권보전지역과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접합

강원도는 청정자연과 산고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면서 발원지 및 계곡들이 도처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국민여가지대로 지정이 되었고 전 국민의 26.3%가 숙박관광여행목적지로 선호(한국관광공사, 2008)하는 등 관광위락활동의 중심지로 되고 있다. 강원도의 산야, 바다, 계곡 그 어디에도 관광자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보전을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을 위해서는 생태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며 주변의 배후지와 농산촌에는 녹색관광의 개념을 응용하여 강원도에 적합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은 발원지 주변의 자연경관, 생물다양성 보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촉진, 문화적 가치의 유지 등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1) 기능의 검토

생물권보전지역은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보전(conservation)·발전(development)·지원(logistic supports)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보전(conservation)은 유전자 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유

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지역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둘째, 발전(development)은 당해지역의 경관을 형성해온 전통적인 활동과 지식,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기능이다.

셋째, 지원(logistic supports) 보전과 발전에 관한 시범사업, 정보교환, 환경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연구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2) 지역의 구획

상기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획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核心地域(core), 緩衝地域(buffer zone), 轉移地域(transition area)로 구획하여 활용한다. 여기에서 핵심지역(core)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을 할수 있는 법으로 보호되는 지역이다. 완충지역(buffer zone)은 환경교육, 휴양, 생태관광, 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전이지역이나 기타 주변지역의 개발로부터 핵심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이지역(transition area)은 농경지와 주거지, 기타 여러 용도로 이용되며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관계기관, 학자, 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 등이 공조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녹색관광으로 지역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표 4> 한국의 보호지역

- 생물다양성을 당해지역에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의 보호지역은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천연보호림,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이 있다.

①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준하여 국립공원 20개소(6,473km²), 도립공원 22개소(747.8km²), 군립공원 29개소(307.8km²)가 지정되어 있다. 자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영구히 보존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강원도에는 국립공원 3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2개소가 있다.

②생태계보전지역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 우포늪, 낙동강하구, 명지산, 대암산 용늪, 무제치늪, 섬진강 수달서식지, 대덕산 금대봉, 백운산, 거제시의 고란초 집단 자생지, 한강밤섬, 둔촌동 자연습지, 송파구 방이동 습지, 가락동 탄천, 동강수면과 주변 국·공유지,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성 입구 습지, 강동구 암사동 한강둔치 등이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모래언덕(사구) 주변 해역 0.64㎢와 제주 서귀포시 범섬과 문섬, 섯섬을 포함한 주변 해역 13.7㎢ 등 2곳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태백시 대덕산-금대봉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생태계보전지역이며 여기에 한강발원지인 검룡소가 있다.

③천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준한 천연보호구역은 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설악산, 홍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서식지/종 관리지역이며 향로봉-건봉산, 대암산은 자연보존지역이다.

④기타

산림법에 준한 천연보호림(133개 지역 110km² 지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준한 조수보호구역(717개 지역 717km²), 습지보전법에 준한 습지보호지역(아직 사례 없음)이 지정되어 있다.

2) 보전과 개발의 문제

개발이나 보전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다. 개발은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인 변형이 시도되므로 자연파괴라고 부르짖는 환경보호론자들도 있다. 또한 자연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지정과 주민의 생활권 산업활동권의 침해는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기한 <표-2>의 보호지역들의 당면한 과제들 중의 하나는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과 요구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이 생활권과 가깝거나 중복이 될 경우 정부와 주민의 갈등을 둘러싼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이다.

3) 발원지에의 적용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 유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의 구획(zonning)개념을 원용하여 첫째는 핵(core)으로서의 발원지(검룡소 등) 유역의 일정범위를 설정하여(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름) 관광자나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이 경우에 발원지의 샘을 볼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밀착접근을 통제하거나 환경적으로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단일 접근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는 관광대상의 연출기법에 따라 매력을 연출한다. 둘째는 완충지역으로서 발원지 주변의 계곡, 산림 등을 생태관광의 코스로 개발,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축하도록 한다. 셋째는 완충지역의 외부에 있는 전이지역(농경지, 마을, 산림, 산야, 평원 등)을 녹색관광, 농업관광의 대상지로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유대강화, 관광수입 증대 등을 도모한다.

2. 생태관광

1) 생태관광의 개념과 의의

생태관광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관광활동을 조화 있게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광생태계의 환경에 기초한 관광의 형태이다. 또한 환경인식을 갖고 특이한 자연환경과 야생 및 생물자원을 가진 관광생태계를 관찰, 학습, 체험하는 활동이다. 생태관광은 환경조전과 관광의 조화 있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환경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는 유기체가 되도록 하여 관광자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며 관광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촉진시킨다.

이러한 생태관광은 원래 열대지역의 자연관찰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열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쓰이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을 거의 동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생태관광은 대중관광(mass tourism)이 초래한 각종 폐해,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환경파괴, 지역사회와 유리된 관광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파괴 등을 막고 환경에 대한 負(-)의 영향을 극소화하며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말한다(水谷知生, 1992).

생태관광의 성공하기 위한 성립조건으로는 첫째, 매력적인 자연과 생물이 존재할 것, 둘째,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연구와 조사연구의 계속성, 셋째, 조사연구의 성과를 자연보호 속에 되살리는 제도 및 기구가 확립될 것, 넷째, 관광체계 속에 고도의 자연과학적 소양이 있는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확보시킬 것이다(伊藤秀三, 1994). 이러한 생태관광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생태관광의 적용

발원지 인근 주변 완충지역(buffer zone)에서는 환경교육, 체험, 휴양, 레크리에이션활동, 연구 및 탐사 등과 같은 생태관광활동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검룡소 등과 같은 하천의 발원지 주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자연탐색, 자연관찰, 하이킹을 위한 코스의 개발, 삼림공원, 자연관찰원, 등산, 오리엔테어링, 트림파크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예, 꽃산채, 버섯, 과실, 단풍 등과 같은 매력물 외에 조류, 양서류, 곤충, 포유류 등)을 테마의 소재로 할 수도 있다.

3. 녹색관광(green tourism)

1) 녹색관광의 개념과 의의

녹색관광이란 녹음(green)이 가득한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하는 체재형 관광활동을 말한다. 녹색관광을 일본에서는 농업관광(アグリツーリズ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농촌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되며 농산어촌진흥(경제·사회의 발전), 농산어촌 보전,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 등을 위해 행해지는 관광현상이다. 일본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커뮤니티의 부흥을 위하여 농산촌을 살리는 운동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녹색관광이며 이는 도시의 입장에서 '풍요로운 농산촌의 자연환경 속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휴가'를 의미하지만 농산촌의 입장에서 '자연, 삶, 문화자원의 재발견과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와서 녹색관광을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1992년 일본의 농수산물성(農水産省)이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 및 농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이 녹색관광이다. 1994년에 녹색관광법을 제정하여 95년부터는 전국에 4개 마을을 녹색관광 육성지구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 목표의 명확화로 최고(number one)가 아닌 유일성(only one)을 추구한다.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린 고유하고 개성이 넘치는 세계의 단 하나밖에 없는 마을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녹색관광의 적용

하나의 사례로, 1995년 녹색관광 모델지구로 선정된 九州 북부지방의 福岡縣 浮羽町(うきはまち)은 바위의 계곡, 폭포의 계곡, 반딧불의 계곡을 중심으로 녹색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의 구나다께 민박은 봄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에는 반딧불 체험, 모심기, 대나무 밥짓기, 별자리 관찰, 가을에는 벼베기, 밤줍기, 야외 음악 콘서트, 그리고 겨울에는 떡만들기 등 20여가지 이상의 농산촌 체험상품을 만들어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 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승마장 등과 같은 거대자본의 투자와 물리적 환경의 변형을 가져오는 시설개발 없이도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중심의 관광이 가능한 녹색관광의 전개이다.

발원지들이 소개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산간 지역의 바람직한 관광개발은 녹색관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들에 도입될 수 있는 시설들로는 자연휴양림, 스포츠 훈련촌, 별장지, 약초재배단지, 특수작물재배단지, 전원관광지(전원휴가촌), 기도원, 기수련장, 삼림공원, 관광목장, 야생조류원, 수목전시관, 캠핑장, 민박마을 등과 같은 시설들이 있다. 녹색관광 또는 농업관광은 대량이용과 고소비 지향의 유동관광객 보다는 소중형(小衆型) 또는 금전소비형 관광객이라든가 체재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끝으로 발원지의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맺고자 한다. 검룡소는 공인된 한강의 발원지이며 이곳을 둘러싼 대덕산·금대봉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며 태백정선지역의 카지노와 스키장, 이벤트가 연계된 새로운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6장. 맺는 말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주장과 실천운동이 많아지고 있다. 대규모 관광이동과 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오염과 함께 물의 오염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원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소개하고 있고 강원도 중산간 지역은 동해안의 하천의 발원지, 한강 지류의 발원지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발원지의 경제적, 상징적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한강 발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발원지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의 현황을 보면 발원지의 중요성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보전 및 활용 프로그램과 실천 조직 활동 및 예산의 부족, 연구조사의 미흡, 보전과 활용에 주민 참여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발원지 보전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발원지 보전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과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개념을 접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자연경관, 생물다양성 보전, 경제적, 사회적 발전

의 촉진, 문화적 가치의 유지 등을 조화시키려는 개념이다. 생태관광이란 환경보전과 관광 활동을 조화있게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광생태계의 환경에 기초한 관광의 형태이며 녹색관광이란 녹음(green)이 가득한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하는 체재형 관광활동이다.

생태관광의 사례로 日本 滋賀縣 朽木村(くつきむら)의 경우, **아사히 숲(朝日の森)**의 활동은 환경학습의 다양성을 보여 주었고 그것이 朽木村(くつきむら)의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단순한 야외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삼림을 정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또한 지역의 보전에 NPO가 관여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핵(core)인 발원지(검룡소 등) 근접지역의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름) 관광자나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을 연출하며 탐사나 연구조사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서 발원지 주변의 계곡, 산림 등을 생태관광의 코스로 개발·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자연탐색, 자연관찰, 하이킹을 위한 코스의 개발, 산림공원, 자연관찰원, 등산, 오리엔테어링, 트림파크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개발되며 야생 동식물을 테마의 소재도 가능하다. 완충지역의 외부에 있는 전이지역(transition area)을 녹색관광, 농업관광의 대상지인 자연활용촌/자연휴양촌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유대강화, 관광수입 증대 등을 도모해 나간다.

공인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변을 공간적으로 재정비(핵,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하여 한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며 태백정선지역의 카지노와 스키장, 이벤트가 연계된 새로운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고 발원지는 지표조사, 주변의 환경생태조사를 통하여 원형을 보존하면서 샘의 주변을 재정비하고 명승 지정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여 보전해야할 것이다.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학술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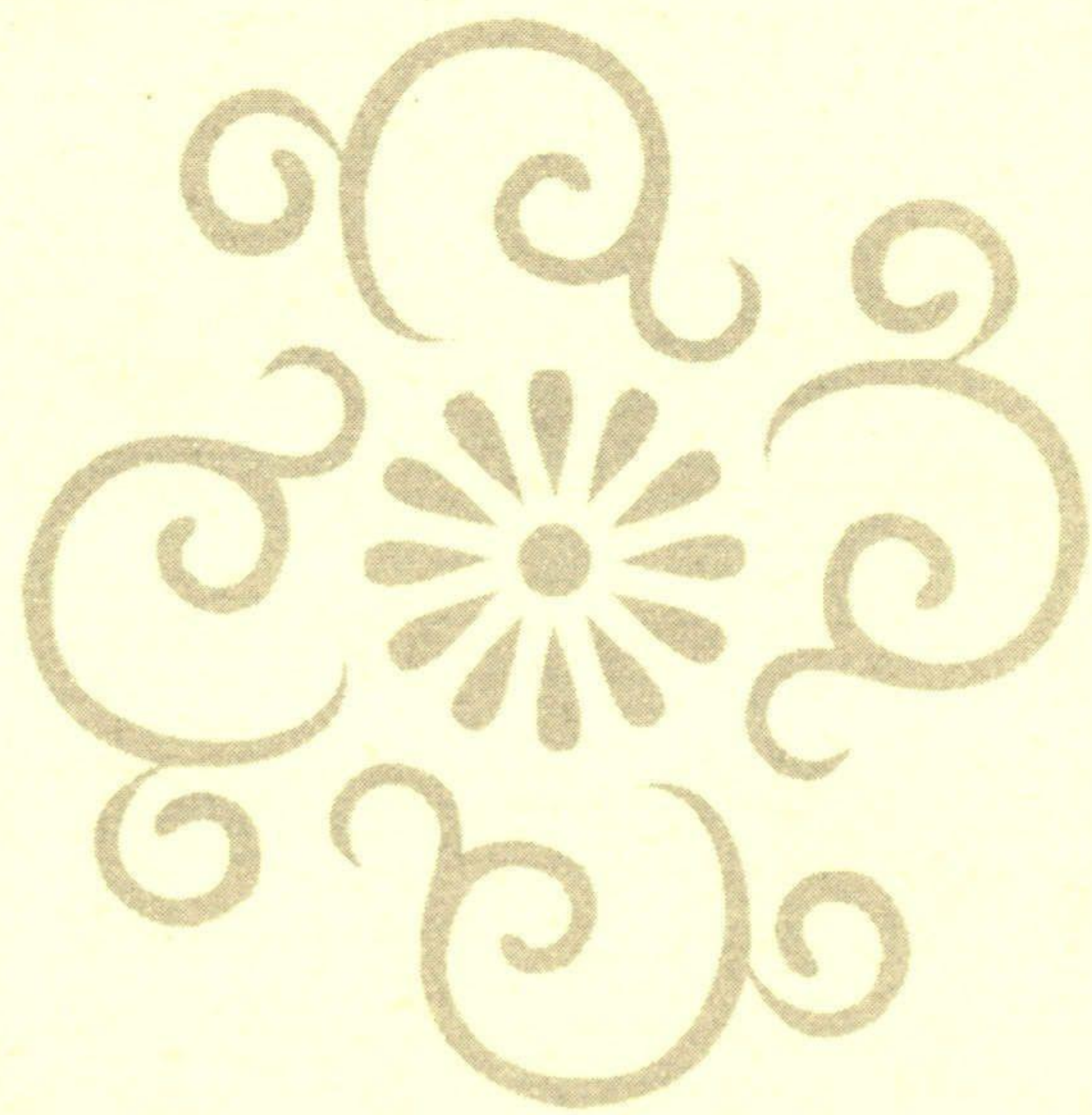
인 쇄 : 2010년 12월 24일

발 행 :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 태백문화원

* 이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전제를 금함.

* 본지는 태백시 보조로 발간함.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한강발원지 검룡소 학술심포지엄